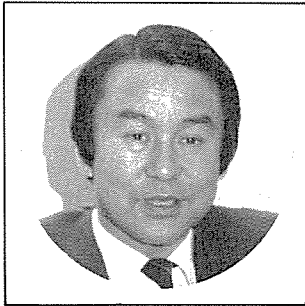


# 科學技術진흥이 民主化의 버팀목



金 明 燮  
(大韓藥師會회장)

현재 우리는 선진공업국의 문턱에서 후퇴할 것인가 뛰어 넘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.

'도입기술'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부상되어 왔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. 이렇게 된 주요원인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국제시장의 문제가 아닌 과학기술의 낙후성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그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다.

국내의 기업들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1986년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를 외면하고 기업 및 설비투자에 주력하게 됐다. 그 결과는 채 2년도 안되어 국제시장에서 국내상품이 각광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그 기간은

짧았고 결국은 선진공업국의 자기술 보호정책에 따라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실정이다.

재고해보면 이같은 외형적 발전의 이면에는 각 기업들이 지금까지 외국의 저급내지는 도퇴된 기술을 이용,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덕본 점도 있다고 여겨진다.

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뒤쳐진 과학기술을 어떻게 단시간내에 회복, 첨단기술 발전의 도약 단계로 진입시킬 수 있을가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.

첫째,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과학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생활 속에 '과학은 최고'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과학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.

둘째, 대학의 연구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. 소위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의 약 80%가 대학에 있는 상황아래서 아직 연구에 전념할 만큼 대학의 연구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.

셋째, 관주도의 연구기관 운용에서 민간기업주도의 형태로 바뀌어 질 때 국제적인 정보의 교류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진다.

넷째, 각 기업들이 과학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. 예컨대, 총생산량 대비 일정비를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.

다섯째, 국내에서 어떤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타기업이 외국의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신기술을 무용지물화 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.

여섯째, 현 국가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대우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.

이상의 몇가지 제언에 덧붙여 정치권의 인사들도 과학기술의 진흥이 민주화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.